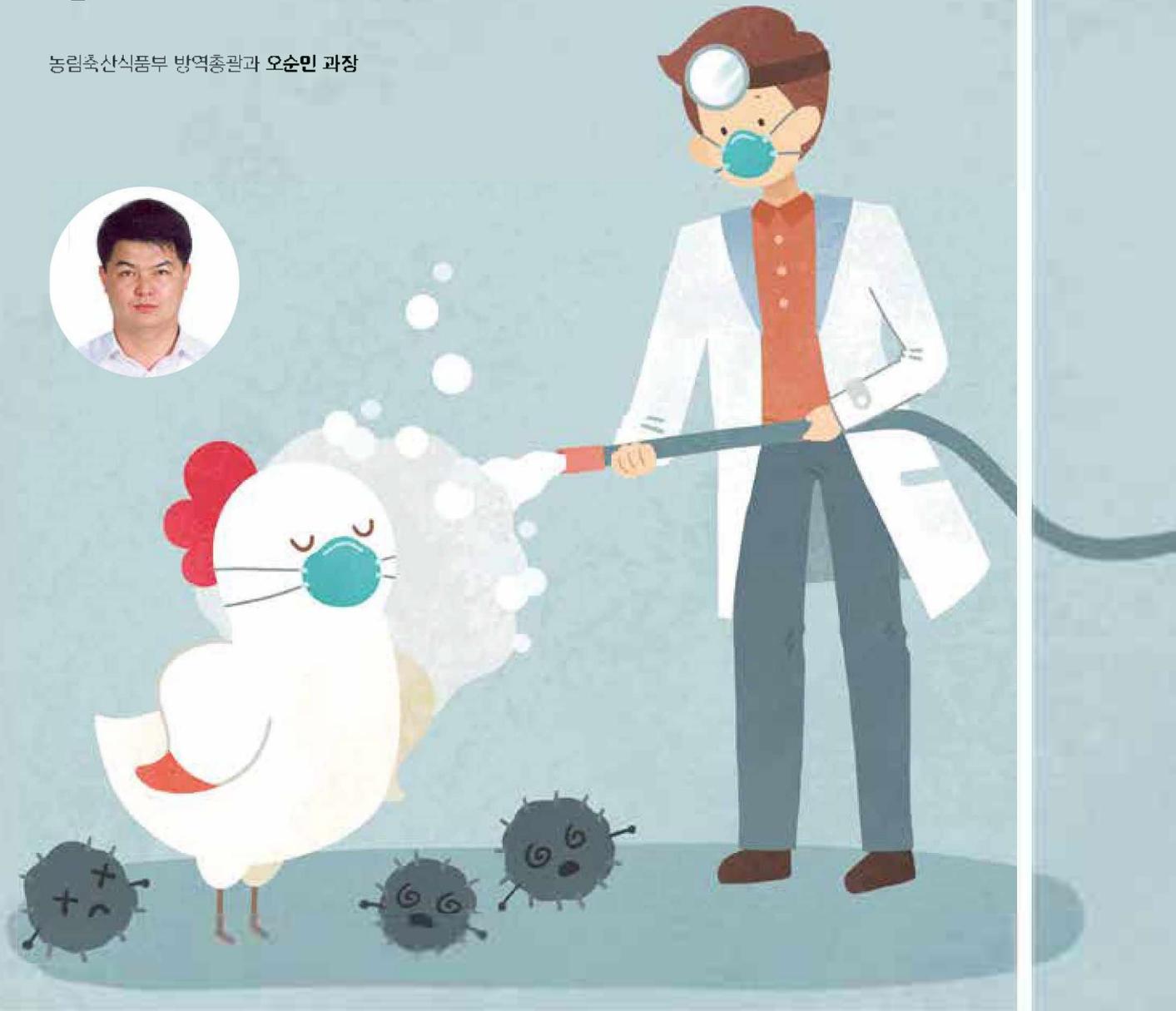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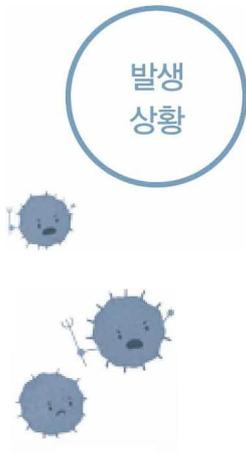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방지 방역 강화 대책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오순민 과장





임동선한의 찬 겨울을 녹이며 입춘을 넘어선 계절은 이김없이 봄을 향하고 있다. 그러나 차가운 겨울만큼이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이파는 매시웠다. 우리나라는 2003년 12월 10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처음 발생된 이후 2016년 4월 5일까지 공식적으로 6차례 발생했다. 지난 11월 16일 전남 해남(산란계)과 충북 음성(육용오리)의 AI 발생으로 7번째 AI가 발생하여 정부는 경보수준의 가장 상위인 '심각' 단계로 높이고 온 힘을 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개월간 전국에서 닭과 오리 3,260만 마리가 살처분·매몰됐다. 정부 등 각계에서는 축종별 특성과 취약지역에 대해 AI방역을 최고로 강화하는 등 재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

〈그동안 AI 발생 및 조치현황〉

구분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발생 시기	'03.12.10. ~'04.3.20.	'06.11.22. ~'07.3.6.	'08.4.1. ~5.12.	'10.12.29. ~5.16.	'14.1.16. ~'15.11.15.	'16.3.23. ~4.5.
건수	10개 시·군 19건	5개 시·군 7건	19개 시·군·구 33건	25개 시·군 53건	19개 시·군 38건	2개 시·군 2건
방역 조치	392호 528만 5,000수 살처분	460호 280만수 살처분	1,500호 1,020만 4,000수 살처분	286호 647만 3,000수 살처분	809호 1,937만 2,000수 살처분	5호 1만 2,000수 살처분
형질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1형	H5N8형	H5N8형



최근 AI 발생은 다양한 원인을 들 수 있으나, 지난 11월 16일 최초 발생한 해남·음성 간의 국내 유입 원인이 중국에서 감염된 야생 전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야생 철새 문변에서는 H5N6바이러스가 검출됐다. H5N6형은 2014년 검출된 H5N8형보다 임상증상 발현율 높아 감염 시 4.5일에 폐사하는 H5N8형과는 달리 H5N6형은 닭의 경우 평균 2.6일 만에 조기 폐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소규모 농가, 고령자 등 취약농가 및 방역규정 미준수(재발률 18%) 등에 의해 바이러스가 지속 순환하면서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

2016년 이후 일본 등 아시아는 H5N6형, 덴마크 등 유럽은 H5N8형이 발생하는 등 전 세계 52개국에서 발생 중



방역 주요
추진 상황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 12월 14일부터 장관 주재 일임점검회의를 통해 첫째, AI 발생농장 통제, 환직장(옮겨 심는 곳)의 축산차량 GPS 운영, 철새 도래지 출입통제 등 주요현장 방역 점검 지속 등 관계부처 및 지자체가 협력하여 범정부적으로 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또한 둘째, 24시간 내 살처분을 원칙으로 발생 당일 살처분과 익일 매몰을 완료하는 한편 셋째, 2016년 11월 16일 이후 신고지연, 이동 제한 위반 등 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치와 GPS 미장착 등 방역규정 위반차량에 대한 고발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신의의 피해 농가가 없도록 생산자단체, 농협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하고, 방역규정을 준수하도록 지도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범정부적인 노력의 결과, 최근에는 AI가 0내지 2건으로 감소하는 등 AI 확산은 진정 국면을 맞고 있다.

개발방지
방역 강화
대책

이번 AI 발생으로 국내 양계산업은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부는 이번 AI현장방역 등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기본으로 농장 차단방역 강화와 사전예방 체계 구축을 위해 가축방역체계 제도를 개편할 예정이다. 그 주요 내용은 사전 조기 감시 대응 시스템 구축, 농장 단위 방역 강화, 가금류 유통체계 개선, 소독제·살처분 방식 등 관련 분야 기반 강화, AI 발생 시 총력 대응체계 구축, 방역 조직·인력 운영 효율화 등이다. 다행히 근래에 AI 의심 신고가 대폭 감소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질병발생 시 결코 감춰서 해결될 일은 더더욱 아니다. 구제역, AI 등 의심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 1588-9060)하여 적절한 방역조치를 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당부
사항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지만 다시 찾아올 겨울에는 이번과 같이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방위적인 노력을 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축산 농가는 협력하여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방역강화를 통해 강한 축산업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끝으로, 고병원성 AI 재발 방지 및 구제역 방지를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축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축산농가에서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차단방역 수칙 등의 준수에 적극 참여하여 주길 부탁드립니다. ☎

